고구려 부흥운동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 운동의 전개

670년 ~ 684년



고구려 부흥운동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

1 고구려의 멸망과 전후 처리

668년(보장왕 27) 9월 평양성이 함락되고, 관련사료 보장왕(寶藏王)을 비롯하여 연남산(淵男產), 연남건(淵男建) 등 고구려의 최고위 지배층들도 포로가 되어 당으로 들어갔다. 보장왕 등은 당의 소릉(昭陵)과 대묘(大廟)를 거치는 관련사료 굴욕을 당하며 장안(長安)의 함원전(含元殿)에 도착하였다. 이후 포로로 끌려간 보장왕과 고구려 지배층들은 당의 고구려 정복전쟁 과정에서 협력의 정도와 공과(功課)에 따라 관계를 받거나 유배에 처해졌다. 당은 당과 고구려의 전쟁의 모든원인을 제공한 것은 보장왕이 아닌 연개소문의 탓이므로 보장왕은 처벌하지 않고 사평태상백원 외동정(司平太常伯員外同正)으로 삼았다. 남산은 사재소경(司宰少卿), 남생은 우위대장군(右衛大將軍), 이적과 내응하여 평양성이 함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승려 신성(信誠)은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를 받아 남산보다도 높은 관직을 받는 등 협력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반면 끝까지 저항하다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남건은 검주(黔州)로 유배를 보냈다.

포로가 된 지배층의 처리는 일단략되었고, 고구려의 영역과 백성에 대한 처리가 남았다. 당은 멸망 당시 고구려의 5부(部) 176성(城) 69만 여 호(戶)를 나누어 9도독부(都督府) 42주(州) 100현(縣) 으로 재편했으며, 평양에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두고, 설인귀(薛仁貴)를 안동도호로 삼았다. 또한 고구려인 중에 당에 협력하였던 인물 중에서 도독·자사·현령을 뽑아 당에서 파견된 관리와함께 다스리도록 하였다. 관련사료 669년 4월에는 고구려의 백성 3만 8300호를 강남 (江南), 회남 (淮南), 산남 (山南), 경서 (京西) 지역의 빈 땅으로 관련사료 옮기는 등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지역과 유력자, 민들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졌다.

2 검모잠의 부흥운동

당은 고구려의 유력 지배자들을 당 내지의 빈 땅으로 옮겨 그들의 원래 기반이었던 고구려 본토로부터 멀어지도록 하였다. 그것은 유력자들을 그들의 연고지에 그대로 둘 경우 물적·인적 기반을 바탕으로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굳이 이러한 불안 요소를 안고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670년 당이 우려했던 고구려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수임성(水臨城: 고구려의 臨津城,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추정) 출신의 대형(大兄) 검모잠(劍牟岑)이었다. 당의 감시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수임성 지역에서 검모잠이 백성들을 규합한 것이다. 그리고 669년 2월, 4천여 호를 이끌고 신라로 망명했던 안승(安勝) 관련사료 을 사야도(史冶